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사야서 40: 3,5)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024년 한국 교단과 선교단체, 선교사 협의회가 결정한 선교 방향과 목표가 남반구 선교와 동반자 선교입니다. 이전 선교 역사를 점검하면서 고민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 30년전부터 이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리더십을 세웠고, 사역은 철저히 파트너십 선교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현지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사역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요, 자랑입니다. 현지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콜롬비아 상황

3년 동안 현 정권 아래서 게릴라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15,000명이었던 게릴라 수가 현재는 22,000명으로 특히 10대들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게릴라간의 평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는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깔리라는 도시에는 6월에 폭탄테러가 났었는데 8월에도 큰 폭탄 테러로 6명의 경찰과 수십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2학기 개강

2025년 8월 4일 개강되어 11월말까지 4개월의 영적 여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에 31명의 신입생이 등록하였습니다. 신입생 중에는 새로운 국가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에서 합류하였습니다. 과테말라의 몽헤 형제는 청년 선교단체 대표로 사역하고 있고, 이 단체는 700명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비전 2030 라틴아메리카로 전환되는 해로서 이제 중미는 동맥이 거의 연결되었습니다. 미국-멕시코-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콜롬비아로 이어진 영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코비드 19 발생후 느헤미야서를 품고 기도 할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의 그림이 점점 구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개설된 과목은 신학 개론, 성서적 교회론, 히브리어 중급, 공관복음, 구약개론, 라틴 아메리카 교회사, 철학 개론, 지혜 문학, 기독교 변증학이 있습니다.

3. 교수들 동정

1) 다음 세대 교수요원 세우기

현재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 여덟 분의 동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은 PH.D와 TH.D , MINISTRY.D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2030년까지 다섯 분 정도의 교수님을 학위 과정을 밟게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코자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과정이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와 신학교 교수로 사역해오신 조은석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WORLD MISION UNIVERSITY에서 내년부터 아프리카 목회자를 위한 목회학 박사 과정이 시작되는데 저희 신학교에 한 자리를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

었습니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고, 과정은 3년으로 2년은 코스웍이고 1년은 논문을 쓰는 커리큘럼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저희에게는 최적의 조건으로 공부할수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학교가 70% 장학금을 주고 학생은 30%(5000불)만 감당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의 비전을 말씀드렸더니 내년 두명을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6년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라울 모레노와 다니엘 산타나 교수가 선발되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라울 모레노 교수는 선교단체를 세우셔서 강력한 선교 사역을 콜롬비아 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까지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수들이 지불할 학비 5000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두 교수님에게는 절반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장학금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2) 엘리자베스 교수의 투병

엘리자베스 교수는 90년 중반에 저희 신학교 초기에 입학해 2005년 졸업하고, 그후에 신학학 석사와 하베리아나 대학교에서 2024년 신학박사학위를 마친 교수입니다.

한 분이 세워지기까지 신학공부에 시간에만 30년의 정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전 시간을 함께해 온 신실한 동역자 이스라엘 오소리오 교수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탁월한 학문과, 겸손하면서도 아주 맑으면서도 강한 영성을 가진 귀한 동역자이자 교수님입니다. 앞으로 저희 신학교의 미래를 책임

지실 교수님입니다.

작년 다리를 다치셨는데 금년에는 심각한 폐색전증이 발생되어 40일 동안 병원 응급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폐 부위에서 간과 심장의 기능까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주세요!

4. 하나님이 보내주신 작은 자들과 함께 하는 생활

1) 토요일에는 마야 김예진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주일 아침에 함께 식사 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본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자매는 이전에 소개드렸던 자매입니다. 할아버지 알렉한드로(한국명 김선우)는 1953년 3살 때 콜롬비아로 입양되어 오신분입니다. 아버지는 콜롬비아 군인으로 엄격한 분으로 마야 자매와의 관계가 심각했었고 이때 신앙을 떠난 자매였습니다. 게다가 자폐증도 지닌 자매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아내와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상담과 영적 조언들을 통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저희 신학교에 입학하여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6과목 이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영어와 이탈리아어도 잘해서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제니 교수의 이탈리아 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마야 자매가 오는 날이 되면 마치 기숙사에 갔다가 주말에 오는 딸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이어서 면이 되고 주님

의 몸된 교회가 되는 비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 금요일 마다 저희 집에 오는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삭 형제입니다. 저희 신학교 제니 교수의 조카이기도합니다. 콜롬비아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형제입니다.

형제가 접하고 있는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후에 아버지가 형제보다 어린 자매에게 결혼해서 2살 배다른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피상담자의 말씀드릴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고 마약 중독도 있는 형제입니다. 작년 성탄절 제니 교수 집에 초청이 돼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금년 1월초부터 아내 김윤정 선교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와서 5시간 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상담 기법과 코칭, 비전 멘토링과 영적 훈련 및 찬양등의 방법, 같이 음식 만들기등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극복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그안에 있는 죄책감을 복음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조금씩 영적 자유함을 넓혀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8개월의 상담 기간 동안에 마약을 끊는 등 구체적인 삶의 개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상담할 때 , 성령님이 만지실 때, 계속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선합니다. 관계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없었던 이혼한 엄마에게서 몇 십년 만에 전화로 아들을 축복한다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 형제가 완전한 자유함과 치유를 갖는데는 가야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반의 시험도 합격했고 다음주에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보기 위해

보고타에서 3시간 떨어진 비자 비센시오 도시 병원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삭 형제는 소아과를 전공하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돕기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 로사 자매와의 만남

현지 교회의 소개로 로사 자매와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로사 자매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로사의 딸이 10대때 사고를 쳐서 낳은 것입니다. 딸은 사무엘을 양육하지 않으려 할 때, 할머니 로사 자매가 손자 사무엘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3대가 살고 있지만 생모는 사무엘에게 전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 아내에게 의뢰할때는 사무엘의 반항심과 정서 불안을 알려와서 1차 만남 때 그림책 상담기법을 사용해서 상담자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로사 자매에게 양육 방법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닌 로사 자매로 상담자가 바뀌어 5주간의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로서의 새로운 양육방법과 자매가 가지고 있는 강요적인 방법을 내려놓도록 했을 때 새로운 관계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콜롬비아 소년 유도대회에서 사무엘이 좋은 성적을 내서 곧 쿠바대회에도 참석하게 된답니다.

사무엘의 산수 실력이 너무 없어 이삭 형제가 사무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5. 뉴헤이븐 교회의 단기의료선교

지난 6월 29일 부터 7월 3일까지 보고타 두 교회 지역에서 의료 단기 선교사역이

진행했습니다. 의료 단기 선교팀이 오랫동안 기간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선교의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종양 내과, 류마티즘내과, 치과, 안과팀이 조화롭게 현지 통역팀과 봉사팀과의 연합사역이 보기 좋았습니다. 봉사 지역은 아수스 뼈에 교회와 생명 공동체 교회였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되어지는 열매가 있었고, 저에게는 90년초부터 2000년초까지 의료선교를 수없이 해오다가 20년만에 의료선교를 경험하면서 이전 주님이 역사하셨던 시간을 회상하고 흥분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6. 저희들의 건강

저는 7월에 인생 처음으로 위염을 앓았습니다. 맨 처음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소식과 소화제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전해서 증상을 챗지피티에 정보를 집어넣고 문의해보니 위염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산제와 오메프라졸을 복용하니 반 나절만에 호전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7월 초에 2도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게서 긴급 치료를 하고 1개월 동안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이전 자취 경력과 인터넷 레시피를 참고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랴 집안 정리하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아내의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해서 급히 고지대인 보고타(해발 2640M)를 떠나 저지대에서 4일 정도 머무르면서 호전이 되어 다시 보고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하면서 가야되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6. 기도 제목

- 1) 2학기 학사 일정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부어주소서!
- 2) 내년 목회학 박사 과정을 위한 후원이 모집되게 하소서! 우선 시급한 2000불
- 3) 전문의 과정을 밟는 이삭 형제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 4) 금년 신학교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3000불
- 5) 김윤정 선교사의 내년 콜롬비아 정신 건강센터 개설을 위해서

